듣는 강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함께 걷는 교회

우리는 불평등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노동자들보다 수천 배나 많은 돈을 벌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로 인해 취약계층은 타격을 받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발전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세상이, 이처럼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2007년 법 제정이 추진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정이 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그것입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및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게 하려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늘 소수이며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지금 시노드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서, 하느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심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성을 가르칩니다. 시노드의 여정에서 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평등한 존엄성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드의 첫 자리에 경청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경청을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로써 아버지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도 들은 것만을 이야기하시며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도 한 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내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걷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박창균 시메온 신부 | 월남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잠언 8,22–31
화 답 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 서	로마 5,1–5
복 음	요한 16,12–15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서한

사랑하는 마산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교구 자매결연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으로부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오스트리아가 전쟁 없이 살아온 것에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안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리 곁 가까이에 있던 수천 명의 이웃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개개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빠른 시일 안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시대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여전히 하나의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불안과 불확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운 생명(요한 10,10)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례와 견진성사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알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사는 우리 신앙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미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위해 우리의 사제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교회의 많은 봉사자들도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에서 위안을 얻어, 지금 이 도전의 시간 속에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며 생활양식입니다. 그라츠-섹카우 교구민들 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산교구의 사제와 교우들의 마음이 하느님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그라츠-섹카우교구는 새로운 사목구역 Seelsorgeräume을 편성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이미 싹 튼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교구 안에서 실현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 젊은이들이 사제 혹은 수도 성소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두 교구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이곳 각 본당에서는 새로운 사목위원들을 뽑았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5년간의 임무를 맡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제와 평신도들은 공통된 성소 안에서의 협력을 통해 교회가 고무되기 위한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전 세계적 시노드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구 안에서 토의 과정을 거친 후, 시노드 모임에 초대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미사의 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사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계기들이 새로운 미사 양식을 위한 제안이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새로운 미사양식과 의식을 통해 교회와 전혀 무관하거나 또는 매우 드물게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마산교구의 발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교구청의 건립이 불가피했던 것은 마산교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기도로 마산교구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라츠-섹카우교구 내 엘리사벳 수도회의 호스피스 활동과 노동, 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산교구의 재정적 도움은 크나큰 선물과 같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산교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여러분의 목자이자 같은 직무 안에서 나의 형제인 존경하는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 더불어 전임자인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과 박정일 미카엘 주교님을 생각합니다.

50년을 넘어선 자매결연의 기쁨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대륙을 넘어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항상 희망하도록 합시다.

2022년 6월 12일 자매교구의 날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Bischof Wilhelm Krautwaschl

빌헬름 크라우트바쉘 주교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본당 여름 신앙학교 준비를 위한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가 1차는 5월 15일 성지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차는 5월 22일 여좌동성당에서 개최되어, 총 128명의 교리교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인 모든 형제들 중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주제로 수원교구 한올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김영구 소장이 연수를 진행하였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었다.

공소회장협의회 연수

공소회장협의회 연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교구 내 공소 회장 10명이 참석하였다.

회원동본당 사랑의 샘 Pr. 2,000차 기념 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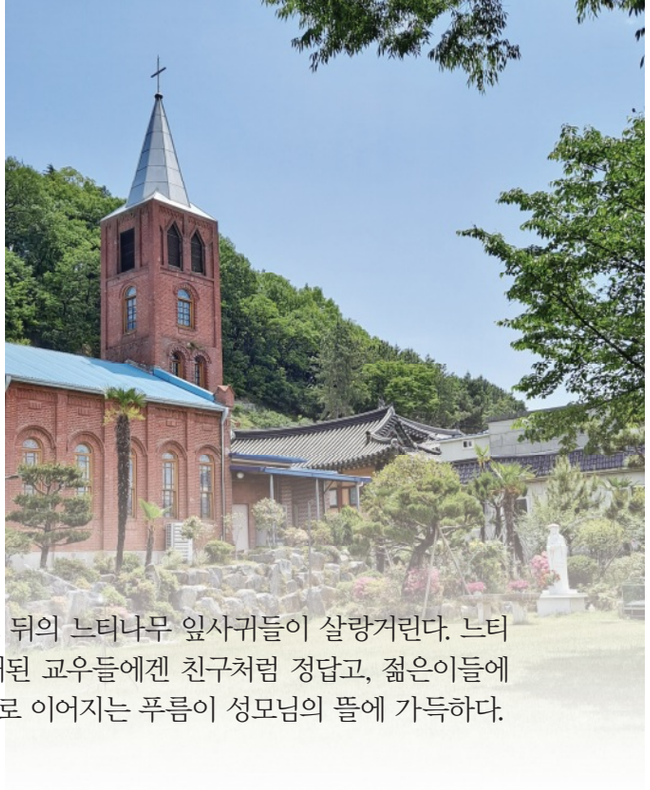
회원동본당(주임: 하춘수 레오 신부) 신약의 성궤 Cu.(단장: 손금자 루시아) 소속 사랑의 샘 Pr.(단장: 성복숙 아녜스)은 지난 5월 13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사랑의 샘 pr.은 1982년 6월 24일 설립하여 그해 7월 8일 주회합을 시작하였다. 단원들은 40년 동안 함께 주회를 하며, 레지오 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3,000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라츠-섹카우교구를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그라츠교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당신 안에 저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라츠교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성령의 풍부한 열매로 축복해 주소서.
특히 부족한 사제성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라츠교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라츠교구가 발전하게 하소서.
또한 그라츠교구와 마산교구의 자매결연이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당신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구장 인준

뿌리 깊은 나무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 옥봉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어서 오라 손 내밀며 중앙통로를 지키는 예수성심에 끌려 다가서면 그 뒤의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린다. 느티나무 고목은 옥봉동성당의 역사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지킴이이다. 오래된 교우들에겐 친구처럼 정답고, 젊은이들에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든든하다. 옥봉동성당은 활기차다.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푸름이 성모님의 뜰에 가득하다.

문을 활짝 열고, 더 빠르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주임 신부는 느티나무를 가리킨다. 서부경남의 뿌리인 옥봉동성당도 마찬가지다. 깊은 뿌리를 내린 이 성당은 코로나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풀린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정상화도 더 빠르게 이루려고 한다.

지난 성소 주일에는 주일학교 이색행사가 열렸다. 본당에서 사제복과 수도자복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저마다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가졌다. 학생들은 실감나게 포즈를 취하며 생동감 느끼는 '성소의 시간'을 즐겼다. 성모의 밤 행사는 아름다운 성모님의 정원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대하게 치렀다. 그리고 그다음 5월 26일, 2박 3일로 주일학교 제주도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초중고 학생 19명, 교사 7명, 사제와 수녀를 합쳐 28명이 순례에 발 빠르게 나섰다. 주일학교를 위한 본당 예산에 더하여 신자들의 빨랑카가 쏟아졌다. 노령화되어가는 현상에서 어린아이, 청소년들의 역할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아는 어른들이 주머니를 열어 그들이 가는 걸음을 도왔다.

처음으로 본당을 맡은 젊은 본당 신부가 부임하여 의욕적으로 활기차게 사목하는 것을 바라보며 연로한 교우들이 신앙의 회춘을 맞는 듯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늘고 예비자도 늘어 젊은 사람들이 얼렁거리는 것이 희망으로 반짝거렸다.

묵은 사람들의 본당 예찬

로마네스크 양식의 붉은 벽돌 성당 건물은 1933년에 봉헌되어 몇 차례 보수와 증축을 거쳤지만, 옛 모습이 유지되어 근현대 성당 건축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준다. 2005년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는 소성당과 더불어 식당 겸 강당, 사무실과 회합실, 사제관과 수녀원을 들인 신관을 신축하였다.

박 데레사 수녀와 본당의 일꾼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희식 야고보 사목회장, 윤복희 모니카 부회장, 김재권 니고나오 전 회장, 양진순 다리아 전 부회장은 옥봉동 100년 가까운 역사에 저마다 벽돌을 쌓아올린 사람들이다. 김 니고나오는 신관을 신축할 때 거창, 지세포, 사파동, 완월동으로 본당을 찾아가 모금하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단다. 본당 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공하고, 문화재인 본관 성전과 더불어 완전체를 이루어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몰랐다. 양 다리아는 젊은 날에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봉사하다가, 교직에서 은퇴 후 우리농매장 대표를 맡아 7년째 일하고 있다. 자나 깨나 본당일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좌중이 입을 모은다. 윤 모니카는 여성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오랫동안 만나회를 맡아 일했다. 만나회는 주일미사 후 한 달에 한 번 전 신자들이 점심식사를 나누도록 준비했다. 코로나시기 동안 중단했던 이 일을 다시 정비하려고 한다. 박 야고보는 100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묵묵히 주어지는 일을 사목위원들과 함께해 내려고 한다. 진행된 기금마련도 이어가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박 데레사 수녀는 이 성당에 배어 있는 정신이 '본당 사랑'이라고 말한다. 교우들의 깊은 신앙이 본당 사랑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남다르다. 넓디넓은 성당을 솔선수범하여 가꾸는 사람이 있고, 덩달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서서 돕고 매만진다.

빈말이 아닌 실천으로 100주년을 향하여

옥봉동성당 주보에는 눈에 띄는 코너 〈실천합시다〉가 있다. '우리 농산물(특히 쌀) 애용, 전기 아낌, 분리수거 생활화, 일회용품 사용 줄임'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함께해 나가고자 한다. 다 아는 일이고 흔한 일이지만 매번 되살려 실천을 권한다. 이재혁 신부는 전임 신부로부터 이어온 일이라고 강조한다. 박 수녀는 이곳 신자들은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이 작은 곳에서도 보인다고 한다. 사목위원들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로 피조물을 살리고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 이들은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여 이루는 사람들이다.

옥봉동본당은 1926년 5월 10일 설립하며 주보성인을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로 모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 공동체는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끊이지 않았고, 성령기도로 신심이 가라앉지 않게 지켜냈다. 2026년이면 100년이 된다. 90주년에는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신심을 다지는 메시지를 적어 '옥봉'이라는 큰 글자나무에 매다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신자들은 그때 다짐하거나 소망했던 메시지들이 백 년에 이르러 무르익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70주년에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30년의 시간을 더하여 『옥봉동본당100년사』를 편찬하는 중요한 과제도 놓여있다.

그들은 백 년으로 가는 길에 만나의 집도 문을 빨리 열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심심단체의 활동들도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거기서 훌쩍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더 무성해지고, 공동체는 더 왁자지껄 풍요롭기를 바란다.

기억할 선종 사제

문영수(시몬) 신부
1994년 6월 14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삼규(요한) 몬시뇰
1999년 6월 15일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3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15일(수)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10·3599·2009
▷미사 후 점심 식사 준비

교구/본당

사제 피정 1차
일시: 6월 13일(월)~17일(금) 4박 5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 특강
일시 및 장소: 6월 13일(월) 칠암동성당
6월 14일(화) 명서동성당
10:00~13:10
주제: "예언자들: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동정하시는 얼굴"-예언서/ 참가비: 5천 원
강사: 조우현 신부(광주가톨릭대교수)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5~6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6월 15일(수) 10:00
장소: 삼천포성당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워크숍 및 종강미사
일시: 6월 18일(토) 10:00/ 장소: 교구청

청년 성령 봉사자 은사세미나
일시: 6월 18일(토)~19일(주일) 2일간
장소: 교구청

청소년 리더십 연수
일시: 6월 18일(토)~19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467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6월 19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6월 모임
일시: 6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장애인복지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월간보고서 6월 월간 '북토크 –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일시: 6월 22일(수) 19:00
장소: 다이룸플러스 5층 북라운지(마산합포구 3.15대로 KT서마산지점)/ 대상: 지역주민 30명
작가: 유해정(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클래식 기타공연, 북토크 및 질의응답 등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

기 타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 참가 모집
내용: 천주교광주대교구 기관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전국 교구의 청년 신자들 대상으로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여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청년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 참조 바랍니다.
문의: 062·234·2737

제17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6월 13일(월)~7월 15일(금)
문의: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02·460·7622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cbck.or.kr) 참조 바랍니다.

어머니·아버지학교 줌온라인교육
일시: 6월 24일~7월 15일, 매주 금 19:30~21:00(4주간)
주제: 자녀 신앙이어주기
접수: 6월 20일(월)까지/ 회비: 4만 원
주관: 한국평협/ 햇살사목센터(강사: 조재연 신부)
문의: 햇살사목센터 02·744·084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7월 2일(토) 14:00
여름진학캠프: 8월 6일(토)~7일(주일)
대상: 현 초6~중2/ 문의: 054·338·0530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시설관리 1명, 주방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irem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렬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마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오답 노트

문정임 젬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매뉴얼에 따라 뭐 잘 못한다. 나름 지시에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나는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부주의한 '털푼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히 학교 때의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특기 또한 없다.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야 새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늘 바쁘게 쫓아다니지만 전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기도생활도 어설프다. 천주교 신자 티는 많이 내고 다녔는지 지인으로부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너희들이 가슴에 대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응, 성호라 하고 신자로서 하는 가장 짧은 기도지. 성부성자성령 삼위께 청하는 염원과 구원의 신비가 담긴 성호경을 외우면서 긋는 십자 기도야"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닌 거야?" "그게 말이지 하느님은 당연 유일하고 거룩한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격을 지니신 음 음 말하자면 좀 어려워, 복잡하고……." 대강 얼버무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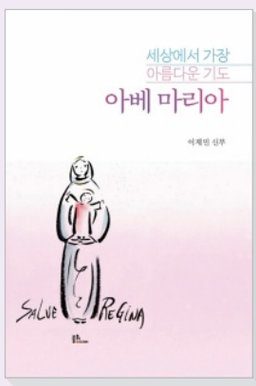
오늘은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이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빙충이가 교리인들 제대로 이해했겠는가. 또한 타인에게 잘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이 장미를 보아. 아름답고 향기롭지? 그 향기의 원천을 찾으려고 꽃잎 한장 한장을 떼어가며 꽃 속을 파고들어도 향기의 자리는 찾을 수 없어, 또한 잘 가꾸어 향을 맡으려고 하다가 그 방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어느새 향 따위는 간 곳이 없고 '~하는 법'만 무성해진다는 거지."

매뉴얼을 꼼꼼히 따라하진 못하지만 불쑥 궁금할 때, 또는 지독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야 겨우 마지못해 펼쳐보는 매뉴얼 북,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 부른다. 대단한 결심의 새해 다이어리도 2~3월 며칠쯤 가면 흐지부지되고 평생교육원 무슨 강좌도 용두사미이고, 무슨무슨 이름이 붙은 성경 쓰기, 읽기도 해 보지만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늪과 같다. 물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같이야 아니더라도 좀 쉬워지고 가벼워져야 할 텐데 아득하기만 한 진리의 세계다. 고시 공부를 하듯 줄줄 외우고 가부좌한 선승 자세로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띄엄띄엄 찾다보면 어느새 나의 손때가 묻어나고 나의 언행이 비슷하게 닮아간다면 희미하나마 그리스도의 향이 배어나올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기록의 어느 한 장면은 이렇다. 나이도 어린 주제에 유산 몫을 미리 받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착실하나 동생의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부어터진 형, 우리는 정해진 시선으로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본다,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쳐야할 드라마의 아버지 대사는 반전도 보통 반전이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 즉, 천상의 언어가 통용된다. 또는 일꾼을 사서 포도농사 짓는 농장주가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오후에 온 일꾼이나 같은 값의 품삯을 쳐 주는 모습에 당황한다. 역시나 하늘나라 셈법이다. 자본이 하나의 주의가 된 세상 속 지상교회 우리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성부성자성령의 거룩한 삼위시여! 부디 매뉴얼에 더딘 저이오나 죽는 날까지 늘 질문이 이어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틀린 답을 고쳐 쓸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신간소개



- 출판: 불휘미디어
- 지은이: 이제민 신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아베 마리아(3판 개정판)

성모송은 천주교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와 함께 가장 많이 애송하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모송을 즐겨 애송하는 까닭은 성모님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만 성모님처럼 아픈 인생을 사신 분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처녀로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성모송은 이런 기구한 운명을 사신 마리아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는 기도, 온갖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의 빛을 드러내며 복음의 삶을 사신 마리아의 일생과 그분의 절실한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책은 1999년도에 나온 『성모송』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1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지만, 몇 년 만에 절판되어 아쉬워하던 중 간간이 이 책을 찾는 독자가 있어 복음과 동정의 삶을 보완하여 3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이제민 신부 –

모압의 임금 발락과 발라암(민수기 22-2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지금 모압 벌판에 와 있습니다. 당시 모압의 임금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임금 시혼과 바산 임금 옥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놀란 그는 두려운 나머지 유명한 주술사인 발라암을 불러오고자 합니다. 그의 저주만이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발락 임금은 모압과 미디안의 원로들을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 프토르로 보내어 발라암을 데려오게 합니다(민수 22,5). 여기에서 강은 유프라테스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발라암은 아람 땅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이라는 이름은 성경 밖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현재 요르단 왕국의 데이르 알라라는 장소에서 1967년에 발견된 기록문은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의 회벽 위에 잉크로 쓰인 것으로 기원전 750~700년경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기록문에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이 밤에 신들의 환시를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발라암이 가나안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실존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민수기 22-24장에서 발라암은 주님께 아주 충실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발락의 대신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많은 복채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발라암은 다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떠나라는 허락을 주십니다(민수 22,20-21). 그런데 바로 다음 절부터는 하느님께서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주님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 22,22-35은 본래 이야기의 문맥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이 사건의 배후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삽입된 구절로 보입니다. 발라암은 나귀를 타고 하인 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여기에서는 그와 함께 길을 떠난 발락의 대신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칼을 빼어 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막아선 것을 본 나귀는 천사를 피하려고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주인은 애꿎은 나귀를 때리고, 마침내 나귀는 입을 열어 자신을 왜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고 따집니다. 영험이 있기로 유명한 발라암이 짐승들 가운데 어리석기로 정평이 난 나귀도 알아보는 주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내 눈이 열려 주님의 천사를 알아본 발라암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의 천사는 그가 나쁜 길을 걷기에 막아섰으며,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라암이 용서를 청하며 돌아서겠노라고 말씀드리자 주님의 천사는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되 오직 그가 들려주는 말만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발락은 발라암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한 후,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발라암은 이스라엘을 향해 네 번 신탁을 발설합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발설하였고,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신탁을 발설하자 화가 난 발락은 발라암을 그만 돌려보냅니다. 발라암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탁을 발설합니다. 이 신탁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서 왕홀이 일어나 셋의 모든 자손들의 정수리를 부수리라는 예언입니다. 훗날 이 신탁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발라암 이야기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심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업을 앞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느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입니다.